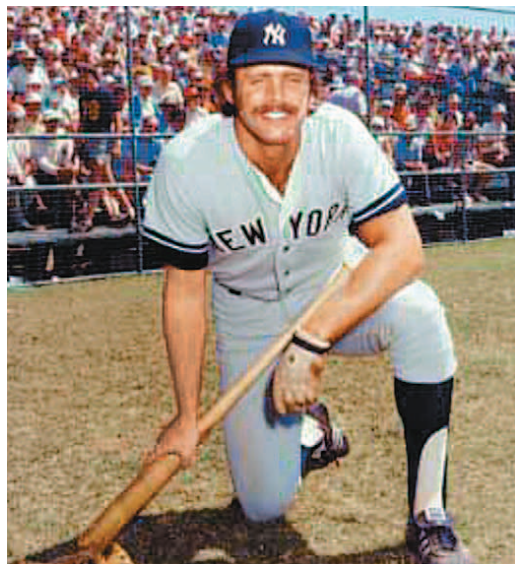


ML 인사이드 지명타자의 모든 것

LA 다저스 류현진(26)은 14일(한국시간) 애리조나전에서 3타수 3안타를 치는 깜짝 활약을 펼쳤다. 그의 타격 실력에 다저스 동료들도 “애리조나의 이언 케네디가 등판하는 경기에는 류현진이 4번타자로 나서는 게 좋겠다”고 농담할 정도로 감탄했다. 15일 애리조나 원정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중계한 LA 지역 ‘프라임스포츠’는 트위터를 통해 ‘당신이 타자로서 류현진과 커쇼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고를 것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날 3안타를 친 류현진과 개막전에서 솔로홈런을 날린 커쇼의 방망이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질문이었다. 결과는 72%를 얻은 커쇼의 압도적 우세였다. 이처럼 내셔널리그에선 투수가 타격에서도 깜짝 쇼를 해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 반면 아메리칸리그는 지명타자(Designated Hitter) 제도를 쓰기 때문에, 인터리그 경기 외에는 투수가 타격하는 장면을 볼 수 없다.



아메리칸리그에서 첫 지명타자로 타석에 선 뉴욕 양키스론 블룸버그(위 사진). 대표적인 지명타자에게 주는 ‘에드가 마르티네스 어워드’를 6번이나 수상한 보스턴의 ‘빅 파피’ 데이비드 오티스.

스포츠동아DB

●지명타자 제도는 언제 도입됐나?

지명타자 제도가 아메리칸리그에 도입된 때는 1973년이다. 지명타자의 정확한 정의는 수비에 하지 않고 투수 대신 타격을 전담하는 선수로 경기 시작 전에 반드시 지목해야 한다. 만약 지명타자를 라인업에 넣지 않았을 경우 그 경기에선 끝까지 투수가 타격을 해야 한다. 만약 경기 도중 지명타자로 나선 선수가 야수로 투입될 경우에도 투수가 타석에 서야 한다. 다른 포지션은 ‘더블 스위치’를 통해 타순을 바꿀 수 있지만, 지명타자의 타순은 변할 수 없다.

2012년 8월 4일 오를랜드 원정에 나선 토론토는 연장 12회초 부상을 당한 중견수 콜비 라스무스 자리에 1루수를 보던 안 콤스를 이동시켰고, 야수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지명타자로 출전한 에드윈 엔카르나시온에게 1루수를 맡겼다. 지명타자 권리를 포기한 토론토는 연장 13회초 구원투수 애런 루프가 타석에 들어서야 했다. 이 경기에서 패전투수가 된 루프는 인터리그가 아닌 아메리칸리그 경기에서 타격을 한 토론토의 첫 번째 구원투수가 됐다.

간혹 여처구니없는 착각으로 지명타자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2009년 5월 17일 클리블랜드와 맞붙은 조 매든 팀파베이 감독은 벤 조브리스트와 에반 롱고리아를 모두 3루수로 잘못 기재한 스타팅 라인업을 제출했다. 당초 매든 감독의 생각은 조브리스트를 3루수, 롱고리아를 지명타자로 내보내는 것이었다. 1회초를 마친 뒤 에릭 웨지 전 클리블랜드 감독은 심판에게 스타팅 라인업 카드를 문제 삼았고, 결국 팀파베이는 이날 지명타자 없이 경기를 마쳐야 했다. 이미 조브리스트가 수비를 했기 때문에 롱고리아가 나서기로 한 3번타자 자리에 선발투수 앤디 소넨스타인이 들어섰다. 아메리칸리그 팀끼리의 대결에서 투수가 선발 타순에 포함된 것은 1976년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소넨스타인은 적시 2루타로 타점을 올리는 등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승리투수가 돼 매든 감독을 수렁에서 건져냈다.

●지명타자 제도는 어떻게 정착됐나?

초창기 지명타자 제도는 이래저래 흠대를 받았다. 월드시리즈에서 지명타자 제도가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1976년부터 짝수 해에만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홀수 해에는 월드시리즈 내내 지명타자 없이 투수가 타석에 들어섰다. 지금의 규칙으로 바뀐 것은 1986년부터다. 아메리칸리그 구장에서 경기를 치를 경우에만 지명타자 제도를 쓸 수 있고, 내셔널리그 구장에서 대결할 때는 투수도 타격을 한다. 올스타전에선 1989년부터 지명타자 제도가 시행됐다. 처음에는 아메리칸리그 구장에서 경기가 열릴 경우에만 지명타자를 뽑았다가, 2010년부터 두 리그 모두 지명타자를 출전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범경기에선 간혹 내셔널리그 팀들도 지명타자 제도를 사용한다.

지명타자 제도가 생기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1960년대 말 메이저리그는 극심한 ‘투고타저’ 현상을 보였다. 1968년 대니 매클레인은



메이저리그에선 아메리칸리그만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내셔널리그 소속인 LA 다저스의 류현진은 투터로 겸하고 있지만, 인터리그 원정경기에선 타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 14일(한국시간) 애리조나 원정경기에서 류현진이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내고 있다.

피닉스(미 애리조나주) | AFP연합뉴스

‘투고타저 현상 막아라’…AL 40년전 도입 고정보단 주전들 휴식 차원 배려가 대세 반쪽선수 평가절하 DH출신 MVP 단 1명

류현진, AL 팀 볼티모어 원정…타격 못해

무려 31승을 따냈고, 볼 김슨의 방어율은 1.12에 불과했다. 타격왕을 차지한 칼 야스트렘스키의 타율은 0.301에 그쳤다. 메이저리그는 부랴부랴 마운드의 높이를 15인치(38.1cm)에서 10인치(25.4cm)로 낮추고, 스트라이크존도 타자의 어깨에서 커드랑이로 내려 좀더 많은 점수가 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아메리칸리그는 1973년 1월 12일 구단주 투표를 통해 8대4로 지명타자 제도 도입을 승인했다.

●지명타자 제도의 명암

지명타자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긍정적인 면은 수비력이 떨어지는 노장 선수들이 타격에만 전념함으로써 선수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 점

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 선수로는 에드가 마르티네스를 꼽을 수 있다. 18년간 시애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한 마르티네스는 통산 타율 0.312, 309홈런, 1261타점을 기록하며 5차례(1995·1997·1998·2000·2001년)나 최고의 지명타자로 뽑혔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버드 셀리그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2004년 9월 최고의 지명타자에게 수여하는 상의 이름을 ‘에드가 마르티네스 어워드’로 바꾼다고 천명했다. 보스턴의 ‘빅 파피’ 데이비드 오티스는 6번이나 이 상을 차지해 최다 수상 영예를 보유하고 있다. 오티스 외에도 올란도 세페다(1973년), 짐 라이스(1977년), 돈 베일러(1986년)까지 보스턴 구단은 총 9번이나 이 상과 인연을 맺었다.

일각에선 지명타자를 ‘배팅 케이지 플레이어’라며 반쪽 선수로 평가 절하한다. 최우수선수(MVP)나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지명타자 출신들은 수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1979년 아메리칸리그 MVP를 차지한 돈 베일러만이 예외다. 그해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에서 40% 가량 지명타자로 출전한 베일러는 139타점, 120득점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하며 에인절스가 팀 역사상 처음으로 아메리칸리그 서

부지구 정상에 오르는 데 기여했다. 명예의 전당 멤버로는 폴 몰리타와 짐 라이스뿐인데, 두 선수는 약 25% 정도 지명타자로 경기에 출전했다. 역대 최고의 지명타자로 꼽히는 마르티네스는 지난해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36.5%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지명타자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뉜다. 마르티네스나 오티스처럼 시즌 내내 지명타자를 고정시키는 팀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주전 야수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여러 선수를 지명타자로 골고루 기용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명타자 제도는 여전히 메이저리그의 가장 큰 논란거리다. 두 리그가 단일 룰로 통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견해와 지금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셀리그 커미셔너의 머리는 늘 복잡하다.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편집 | 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kang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단 한번 ‘뉴 맨’!! 평생 단단한 놈!!



대표이사 서영숙

www.newm.kr

NAVER 뉴맨

네이버에 뉴맨을 검색하세요.

· 일본지사 T. 03-6278-9461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남자는 원한다!

킨제이 보고서에서 20대는 하루1회 30대 주4회 40대 주2회 50대 주1회 60대는 월3회 정도의 성생활을 한다는 보고를 낸바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이보다 많은 횟수를 원한다. 특히 더 크고 강해져서 여성이 만족할 만큼의 시간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압박관념도 가지고 있다.

▶ 남자가 변한다!

‘뉴 맨’은 젊고 발기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더 크고 두꺼워져서 시간과 횟수의 연장을 원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 강도도가 약해지고 중간에 시들어 약물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운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믿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단단하고 강해져 횟수와 시간에서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준다.

▶ 최장! 최다의 기록! ‘뉴 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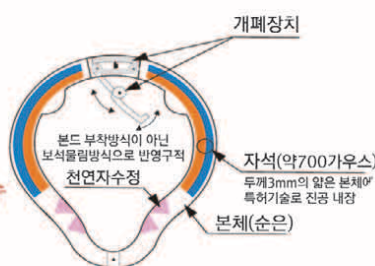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확대, 조루, 발기력 강화의 효능을 인정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유일하게 발명특허를 받은 ‘뉴 맨’은 2005년 각종신문매체에 광고 판매를 시작, 현재 8년간 8천여회의 신문 광고로 단일제품 사상 전무후무한 최장기간, 최다매체의 광고기록을 세웠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20여개국 수출, 50만 고객 돌파의 쾌거도 이루었다. 50만 고객의 의미는 100만 고객일 것이다.

▶ 왜 점점 커지는가?

음경 동맥·정맥위치를 확대, 조루, 발기력 강화의 효능을 인정 ‘남성 성기능 개선, 700가우스의 자기장효과로 음경해면체의 혈액유입량이 평상시보다 30%정도 증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는 헬스로 근육과 몸집을

뉴맨 단면도

*사이즈를 약 5~7mm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음.



키우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써 세력의 강한 발기와 관계시의 확장 마찰은 점점 더 크고 강한 남성을 만들어 준다.

지금까지 ‘뉴 맨’을 구입한 50만 가까운 남성대부분이 큰 사이즈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왜 시간이 연장되는가?

음경몸통 성 신경을 감싸는 음경외피는 피스톤 운동시 팽팽해져서 귀두와 함께 여성기를 마찰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보편적인 외피는 팽팽하지 않아 밀리면서 몸통 성 신경을 자극하여 빠른 사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뉴 맨’을 착용하면 커지고 굵어지는 효과로 팽팽해진 외피가 성신경의 자극을 줄여주어 시간을 연장시킨다.

▶ 8년간 지켜온 뉴맨의 약속!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이 약속은 제품의 자신감과 회사의 책임감에 의한 변함없는 약속이다.



국내 유일 ‘성기능강화용 링’ 특허 획득



평상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 수
6.5이하	주문제작
6.5	1호
6.75	2호
7	3호
7.5	4호
7.75	5호
8	6호
8.25	7호
8.5	8호
8.75	9호
9	10호
9.25	11호
9.5	12호
9.75	13호
10	14호
10.25	15호
10.5	16호
10.75	17호
11	18호
11.25	19호
11.5	20호
11.75	21호
12	22호
12.25	23호
12.5	24호
12.75	25호
13	26호
13.25	27호
13.5	28호
13.75	29호
14	30호
14.25	31호
14.5	32호
14.75	33호
15	34호
15.25	35호
15.5	36호
15.75	37호
16	38호
16이상	주문제작

T.1577-5579, 010-7636-33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주)케이앤제이스포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6-1 한도빌딩 6층